“마음은 슈퍼컴” 대행 선사 심성과학, AI시대 나침반

한마음과학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박진영 교수, 심성과학으로 AI 조명
“AI, 인간 편향 반영…심성과학 필요”
심성과학은 신비 아닌 윤리적 자각

五共심상명상서 AI 이미지 활용하니
참여자들 긍정 심리 변화 효과 상승
‘앎의 환상 극복’ 족첸–대행선 비교
한마음선원 연등회–수행 연결 발표도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9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식 직후 참가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인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물질의 편리함이 인간의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욕망을 키우고 집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AI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내면 평화의 방법을 불교적으로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9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AI시대에 내면 평화를 찾기 위한 담론들을 모색하는 논문부터, AI 생성 이미지를 명상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AI를 조명하는 발표가 이뤄졌다.

AI는 인간의 편향 비추는 거울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통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한 ‘심성과학’이 현 AI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내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지를 조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말하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학(Science)’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과학(科學)’은 자연과학이나 첨단과학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활용되지만 본래 라틴어 ‘Scienta’는 지식이나 기술, 전문성을 의미했다.

대행 선사의 법문에서 나타나는 ‘과학’은 고대 ‘Scienta’로 활용되던 ‘지식’, ‘기술’을 의미했던 본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대행 선사는 ‘과학’이라는 활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면서 “존재하는 것 자체는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이해가 과학이라고 대행 선사는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는 ‘물질과학’과 ‘심성과학’을 언급하지만 선사의 관점에서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면서 “선사에게 물질과학은 심성과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심성과학도 물질과학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행 선사가 설한 ‘심성과학’은 AI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며,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르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행 선사의 ‘심성과학’은 그 담론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된 논지다.

1991년 2월 3일 한마음선원 법형제 법회에서 설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인용한 박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각 개인이 내면과 외면 세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물질과학과 심성과학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인식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적 평화는 외적 환경과 단절된 개인적 심리 상태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의식적 관계 맺음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깊이 얽힌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AI 윤리학자 섀넌 밸러(Shannon Vallor)의 〈인공지능이라는 거울: 기계적 사고 시대에 우리의 인간성을 되찾는 방법〉을 인용해 “AI는 입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만든 것은 인간이므로 인간의 편향성을 거울처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도 심성 없이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라는 심성과학에 대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특히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을 발표하고 있다.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오공(五共)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심성과학은 물질과학을 대체하기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심성과학은 물질과학이 처음부터 왜 필요한가라는 더 깊은 성찰로 이끌어 주는 끊임없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성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나 비합리성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윤리적 자각, 겸허함이자 외적·기계적 지식과 진보의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생성형 AI 이미지, 명상 활용 가능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AI를 명상에 활용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도 발표됐다. 김준영 오산대 평생교육원 강사는 ‘오공(五共,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 사상 기반 심상유도명상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에서 심상유도명상에서 AI 생성 이미지 활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조명했다.

연구는 올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S연구소에서 실시된 8회기 심상유도명상에 참여한 40~60대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상유도명상은 대행 선사가 주창한 ‘오공 사상’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개발됐으며, 프로그램은 이완-심상유도명상-AI 이미지 생성과 탐색-알아차림 공유로 구성·진행됐다.

8회기 프로그램을 마친 결과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참여자 A의 경우 프로그램 2회기(공생)에서 ‘자아 회복’ 이미지를 통해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보였고, 5회기(공체)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기’ 이미지를 통해 “나의 내면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8명의 결과에 대해 김 강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통찰, 관계 회복, 존재 수용 등의 통합적이고 치유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오공 사상이 내면화돼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도구는 치유 및 실천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AI 이미지 생성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탐색·공유하며 무의식적인 내용을 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AI 이미지는 단순한 시각화 도구를 넘어 자기 표현을 확장하고 성찰을 심화하는 창의적 매체로 기능했다. 이는 명상과 예술을 접목한 심리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 청년학자 연구 발표도 눈길

해외 학회에서 발표된 대행 선사 가르침과 한마음선원 활동 관련 연구의 소개도 이뤄졌다. 오영국(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씨는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아시아 비교철학학회에서 발표한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을 통해 티베트 불교 닝마파의 족첸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인 대행선이 ‘앎의 환상(Illusion of Knowledge)’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살폈다.

박진영(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씨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종교역사학회에서 발표한 ‘수행으로서의 축제-대행 선사 가르침에 입각한 연등회 준비’를 소개하고 “장엄등 제작에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은 선사의 법문처럼 마음의 불을 켜기 위해 등을 만들고, 그 결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밝아지는 것을 체험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의 논물 발표도 이어졌다. 야닉 브뤼느통 프랑스 파리 시테대 교수는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백운 화상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했다. 그는 〈백운화상어록〉에 수록된 33편의 서신을 분석하고 백운 경한 스님의 면면을 조명했다.

원하이밍 중국 인민대 교수는 ‘한마음(오직心)의 힘과 의본론(Yibenlun 意本論):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에서 대행 선사 사상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한마음’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 안양본원 총무 혜룡 스님 등 승단과 신현준 신도회장,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